

## 교양 인성 수업에서 대학생들의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병선<sup>1</sup>, 손은경<sup>2\*</sup>, 이준길<sup>3</sup>

<sup>1</sup>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영어과 조교수, <sup>2</sup>중부대학교 아동보육학전공 조교수, <sup>3</sup>상지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 A Study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for UCC Assignment in a Character Education Class

Byung-Sun Kim<sup>1</sup>, Eun-Kyoung Son<sup>2\*</sup>, Jun-Gil Lee<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VERUM College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Care, Joongbu University

<sup>3</sup>Lecture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에게 인성을 주제로 한 UCC를 과제로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 학습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도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 학습자의 참여의욕을 저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주도의 UCC 제작과정은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10명이고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9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 묶음, 그리고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UCC 과제가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의 실천 그리고 인성 개념의 재정립 등 성숙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UCC 제작 과정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그들은 UCC 과제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함으로 보다 성숙해진 인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그들은 UCC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제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UCC 제작의 기술적인 미숙으로 인해 질 좋은 과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주도하여 제작하는 과제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이 마련될 때,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인성 수업, UCC 과제,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college students who took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Using YouTube Videos', which was opened as a liberal arts course in college, directly produce UCC assignments with the theme of personality. Despite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learner-centered education, teacher-centered education still hinders learn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classes. To solve this problem, a learner-led UCC production process is necessary for the practice of effective learner-centered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0 students, in-depth interview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Colaizzi's research method was select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 themes, 4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were deri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recognized that the UCC assignments were a field of maturity, such as practicing the right thoughts and actions, and re-establishing the concept of character. Second, they said that the UCC production process w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Third, they showed a more mature personality by recognizing that the UCC assignments became a chance to pay attention to others beyond themselves. Fourth, they had the greatest difficulty in selecting a topic while carrying out the UCC project, and they were experiencing the limitations of high-quality projects due to the technical immaturity of UCC production. Finally, this study was concluded by discuss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se results provide a suggestion that mor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can be expected when tasks led by learners will be developed and an interactive arena where students can be shared are provided.

**Key Words** : Character education class, UCC assignments, Charact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Phenomenological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Eun-Kyoung Son(toloveme2000@nate.com)

Received February 4, 2022

Revised March 17,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 1. 서론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2]. 대학의 역할은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기술·인간관계 등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며, 인성교육이 그 조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3]. 이를 반영하듯 최근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4], 대학생에게 인성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4년 12월 29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인성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하게 훼손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을 교육 현장에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둘째, 기업이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인성 자질이라는 것[5]과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이다[6]. 이와 관련하여 홍병선(2012)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 특히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한다고 하였고[7], 허지숙(2017)도 4차 혁명 시대의 기업 인재상으로 탈지식화[8], 즉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 품성,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선행연구[9]를 토대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증폭[10,11]시키고 있어 대학은 인성교육을 교과, 비교과 과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교양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1,12].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을 주제로 다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13,14]는 여전히 국내의 논문 및 연구들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연구 진행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 [10]은 관련 연구들이 주로 대학 인성교육의 현황 및 효과성 등에만 편중되어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실제 대상자들이 대학 인성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로 [15]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주로 교육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교육수혜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의 연구들 [4,14,16,17]에서도 기존 대학생 인성교육의 결핍을 메

우고 관련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8]은 현행 대학 인성교육의 주된 문제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야기된 제도와 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대학생들 스스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소재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엇비슷하고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학은 꾸준히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도입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양 윤리를 활용한 대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대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성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다양한 대학생 대상 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인성을 주제로 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 UCC) 과제가 대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연구자가 UCC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UCC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참여와 흥미도를 높이고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킨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19]. UCC는 또한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전문적 기술이 불필요하며, 자유롭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20], 그리고 수업 목표 달성과 학습만족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성취감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결과[21]로 인해 학습자가 수행할 과제으로써 교과목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도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의 효용 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연구로 Creswell(2015)은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개인의 경험이 언어로 표현되어 현실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22].

이를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동안

의 학습을 토대로 인성을 주제로 UCC를 직접 과제로 제작하게 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인성프로그램, 인성교육 효과(영향) 분석, 이론적 기초연구, 측정 도구 개발, 인성교육 사례연구, 인성교육 방안 및 활성화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다루었다[22,23].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최근 유튜브와 같이 영상 플랫폼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추어 인성교육 프로그램 속 과제 수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미와 가치, 그리고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UCC의 개념과 교육적 활용

사용자가 만들어낸 모든 콘텐츠라는 의미를[24] 지닌 UCC는 웹 2.0 기술이 만들어 낸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비즈니스모델로 확장 및 자리매김하고 있다[25]. 기존에 웹 1.0 시대가 일방적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웹 2.0 시대는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활발한 상호작용, 즉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UCC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김민수(2010)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26]. 먼저 초고속 인터넷과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웹 2.0의 보편적 보급과 스마트폰, UCC 검색·편집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이다. 다음으로 자기표현 욕구가 높은 스마트폰과 영상을 태어날 때부터 익숙하게 사용한 Z세대의 등장[27]과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문화적 요인, 그리고 매체 속성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UCC의 교육적 효과를 다룬 국외연구로 [28]는 UCC의 학습에의 적용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지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지식을 확장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 [29]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UCC가 깊이 있는 학습과 능동적인 학습을 견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이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적절한 교수 도구라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과제로서 UCC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로 접근한 Creene와 Crespi(2012)의 연구는 본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크다[30].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UCC 제작을 통해 학습 내용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물론 학습의 즐거움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에서 다룰 내용의 개념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함으로써 학습 활동에서 UCC 제작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 연구라고 하겠다.

영상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습자들을 고려한 UCC 관련 국내 연구도 국외연구만큼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장현과 정지윤(2009)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UCC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학습방법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31]. 연구 결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내재적 동기와 자율성 영역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왔고, 일반적 학습과 비교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김라연(2016) 또한 UCC 제작 완성도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지식창출 도구로서의 가치와 매체적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32].

또 다른 관점에서 강숙희(2007)는 UCC의 교육적 효용성을 탐색함에 있어 우선해야 할 것을 학습자 인식으로 보고, 직접 교육적 UCC를 제작해 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33].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UCC를 지식 창출 도구로서의 효용성과 학습효과 측면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친밀성, 다양성, 독창성, 현실성 등을 UCC의 교육적 활용 시장점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전문성, 비상호작용성, 시간 제약, 저작권 문제 등은 UCC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로 지적하였다.

### 2.2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치우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임광명 등(2016)는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요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인성교육이 초·중·고 도덕 교과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15]. 게다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공백기를 보내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소극적 태도, 학과에 대한 소속감 저하, 전공 분야에 대한 낮은 학업 성취, 대학의 중도탈락, 취업 시 부적응 등)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한

연구라 하겠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이영애(2006)도 인성교육이 등한시되는 성적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발생과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대학에서 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1].

박은민(2012)은 인성교육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단편적인 요인 변화의 검증에 초점을 맞춘 점을 지적하고, 교양강좌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사회적 성숙의 전체적인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3].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대학환경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타인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 인식 경험을 통해 심리성숙(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 정서적 감수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대인관계 갈등 해소 방안 습득, 경청 등의 훈련을 통해 사회적 성숙(대인관계, 사회적응력, 자기관리능력, 공동체 의식)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결국 대학교육에서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한다면 성숙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적응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미를 찾았다.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논문을 통합적 고찰을 시도한 김정선과과 김한나(2016)은 초, 중등 교육에서는 물론 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3].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성교육 과정의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함으로써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들여다보면 먼저 실험연구와 비교해 질적 연구가 부족함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정 기간 이상 실행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연구가 자기 이해 및 사회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좀 더 인성의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현상학은 연구대상들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다. 공병혜(2003)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드러내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학이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하였다[34]. 본 연구는 인성 관련 UCC 과제를 직접 수행해 본 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UCC 과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연구는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의 방법이 지니는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전된 것으로 일종의 “체험연구”로 받아들여진다[35]. 이남인(2005)는 그 이유에 대해 그 절차가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채집하는 연구 자료 수집과정과 자료 분석,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5]. 그는 또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이 여타 다른 체험연구와 구분되는 점으로 현상학적 판단 중지 및 환원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자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수집될 자료와 관련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원자료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적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김경희 등(2011)은 질적 연구가 질적 연구다워지기 위해, 다시 말해 질적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인식 주체자는 인식대상에 대해 두 가지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6]. 그 하나는 인식 주체자인 질적 연구자들이 인식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선이해의 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연구자가 경험하고 이해한 지식이 스스로의 주관성에 한정되어 실제 연구의 대상이 경험과 본질과 유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 연구자 Colaizzi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Colaizzi의 연구방법 중 자료수집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자료출처와 일치된 자료수집은 중요한 특징으로 현상에 대한 전체적 기술 강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Colaizzi 방법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둘째,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 한다.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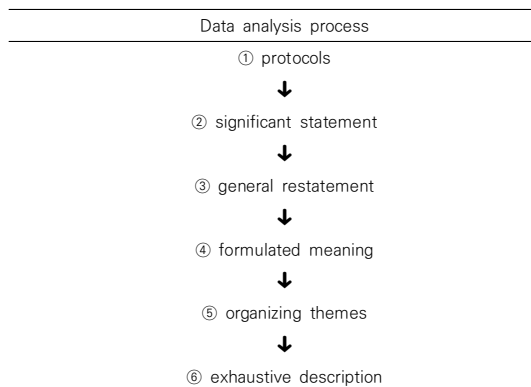


Fig. 1. Colaizzi's data analysis process

본 연구는 앞선 연구자들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이 담고 있는 철학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연구자의 왜곡됨 없이 살아있는 원 자료를 잘 드러내고자 하였다.

### 3.2 연구 대상자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4년제 C 대학의 2021년 1학기 교양 인성 수업을 수강한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성격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총 대상은 수강생 39명 중 14명이 지원하였으나 이 중 4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층 면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10명으로 확정하였다. 전공별로는 국어교육 1명, 조리외식경영학 1명, 의료경영학 1명, 항공운항서비스 1명, 콘텐츠제작 1명, CG디자인 2명, 경찰행정 2명, 안경학 1명이며, 성별로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학년 구성은 2학년 7명, 3학년 1명, 4학년 2명이다. UCC 제작 경험은 전공 분야가 관련 있는 3명의

학생들만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N	Name	Sex	Grade	Major	Experience in creating UCC
1	A	M	3	Contents Production and Media	experienced
2	B	M	2	Police Administration	none
3	C	M	2	Hotel Culinary & Food Service Management	none
4	D	M	4	Healthcare Management	none
5	E	F	2	Police Administration	none
6	F	F	2	Korean Education	none
7	G	F	2	Optometry	none
8	H	F	2	CG Design	experienced
9	I	F	2	CG Design	experienced
10	J	F	4	Airline Cabin Operation Management	none

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는 혹은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이 표현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현상학적 면접은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참여자의 구체적 숫자는 세심한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현상은 큰 표본을 사용하지 않고도 탐구되고 발견될 수 있는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된 현상의 경험이 현상학적 연구의 중심이지, 개인의 특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신할 것이라는 고지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기간, 참여 범위, 비밀 유지, 그리고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접 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 종료 후 면담내용은 물론 녹음자료는 폐기될 것, 그리고 연구 중간에라도 참여 철회 등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 자료 유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함으로써 연구에 진솔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연구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 3.3 연구자의 선이해

개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연구로 연구자 자신이 자료수집의 절대적 도구가 된다. 특히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대학생의 연구 참여자의 수업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교양수업으로 '영상을 활용한 대학생의 인성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인문 융합 교과목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범대학생을 시범으로 전교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들의 수강하여 수업의 핵심인 UCC과제 수행 경험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현상학 연구를 구체화시키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전제와 가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38]. 이는 괄호 치기(bracketing) 혹은 판단중지(epoche)를 통해 현상에 대해 연구자 자신은 연구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인식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22]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 단계마다 실시하였다.

### 3.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21년 3월 2일(화)부터 6월 8일(화)까지 15주간 진행되었다. 1 주차에는 수업 개요와 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성 관련 UCC 과제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기말시험 대체라는 공지하였다. 2주차부터 김병선과 장만식(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 별 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 주제에 따라[45] 수업을 진행하였고, 4주차와 8주차에는 UCC 제작 전략 관련 논문 읽기를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UCC를 처음 제작하는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6주차에는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하였고, 12주차에는 UCC로 제작할 인성 주제를 선정하고 학우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에 주제 선정 이유와 제작 방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3주차와 14주차에는 UCC 제작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상호 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15주차에 UCC 완성품을 제출하게 하였다. Table 2는 수업내용, 수업에 소개된 영상, 과제 및 공지 등 구체적인 수업 운영을 나타낸다.

Table 2. Lesson Plan for Research

Week	Lesson Contents	Watching YouTube UCC	Assignment
1	Introduction to Outline of Lesson Contents & Research		
2	Self-esteem 1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Reflective journal writing
3	Self-esteem 2	Don't hang up and wait on the line	Reflective journal writing
4	Self-regulation	No soliciting	Reading thesis related to UCC 1
5	Positive thinking	Musical: positive campaign	Reflection journal writing
6	Emotional susceptibility	Power of words	Reflection journal writing
7	Caring others	Love for the neighbor making noise between apartments	Reflection journal writing
8	Family love & filial duty	Family which is different inside and outside & dementia	Reading thesis related to UCC 2
9	Acting of Sharing	Poor boy's Lunch hour	Reflection journal writing
10	Conflict resolution	Social harmony & communication	Reflection journal writing
11	Putting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Mistake	Reflection journal writing
12	Sense of altruism	Impressive video	Presentation on outline of UCC assignment
13	Introduction to UCC assignment: Focusing on theory		
14	Introduction to UCC assignment: Focusing on practice		
15	Creating UCC & Sharing them		

다음으로 UCC 제작은 이상우와 이철진(2010)의 연구를 따라 발상하기-자료수집 및 정리-시나리오 작성하기-촬영 및 편집하기 과정[39]을 거치게 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은 SNS 단톡방에 올려 공유하였다.

아래 Table 3은 연구 참여자들이 선정한 인성 주제와 그 배경을 작성한 내용이고, Table 4는 인성을 주제로 한 UCC 작품의 예이다.

Table 3. Motives for UCC production

heme	Producer's Intention
Together	My UCC theme is 'Together'. It is said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depression is increasing these days as the number of people interacting less and more time alone due to the Corona virus. So, I thought I wanted to say that the joy that comes from someone reaching out a hand to the melancholy experienced by a single person and the driving force of life is a great strength. Even if it's not Corona, there will always be people around us who are alone. If we reach out to him first, it will be a great joy for that person. The video was made in the form of a letter written in gratitude to a friend who came to me. (Female student F)
Suicide	I created UCC with the theme of 'suicide', which I learned from character education. Everyone must have thought, "I want to disappear from this world" at least once in life, and suicide is a big problem that occurs frequently in our society. This topic was chosen to help people with an invitation to suicide. (Female student B)
Online Bullying	Too much malicious comments on the internet lead to a lot of social problems such suicide. I want to create healthy internet culture and start the Sunfull movement through my UCC." (Male student C)

Table 4. UCC Assignments Created by Participants

	
<b>Cleaning after you eat</b> : male student C	<b>School bullying</b> : male student B
	
<b>Taking your proper turn</b> : Female student G	<b>Garbage recycling</b> : Female student I

	
<b>Child abuse</b> : male student A	<b>Using tumblers</b> : Female student J
	
<b>Caring others</b> : Female student E	<b>Communication</b> : Female student H

### 3.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배려하고 완성도 있는 면담을 하기 위해 학사과정의 기말시험이 종료되고 1주차가 지난 시점인 2021년 6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1일 2명, 1인 1시간 정도를 면담 시간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면담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녹취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정확성, 충분성(연구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 신빙성(credi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 확보를 위하여 심층 면담의 과정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진술의 내용은 참여자가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점검하였다. 또한 순환적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으로 실행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없고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심층질문들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UCC제작에 있어 참여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수업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문항을 연구과정에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기꺼이 직접 면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학내 카페를 면담 장소로 정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자료는 비지시적 심층 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고,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반구조화 인터뷰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본에 너무 얽매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진지한 경청을 통해 그들의 풍부한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Table 5. Deep interview questions for an instructor

components	deep interview questions
instructional contexts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performing UCC assignment?
learner	What perspectives and beliefs do you have toward the participants? How did I help the participants in order for them to adapt the new role?
instructor	What must be instructor's ideal image when participants perform UCC production assignment? What did I do to manage to performing UCC assignment?
classroom experience	What kind of effort did I make to improve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UCC assignment?

Table 6. Unstructured, open-end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for participants

components	unstructured, open-end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class process	What made you feel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lass when you performed UCC assignment?
learner	Would you talk about an experience in creating UCC as a student?
instructor	How do you feel about your instructor and what do you think are factors that your instructor affect your learning in the process of UCC assignment?
classroom experience	Please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s of learning and participating voluntarily, of learning and growth, and of interaction from learner's perspectives on learning when performing UCC assignments.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담시간 동안 연구자의 경험에 따른 속에서 판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료 분석의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 공동연구 교수자와 연구에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연구자로부터 발생하는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 질적 연구의 도구인 연구자의 어떠한 교수행위를 하였는지 대한 성찰성(reflexivity)을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내용은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40]. 그 이유는 그의 현상학 연구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인성 UCC 과제의 경험과 인식 정도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그가 제시한 방법을 따른 [41]와 [42]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녹음된 면담내용을 상세하게 전사하고, 참여자로부터 진술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그들의 경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문장과 구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연구자료에 나타난 연구대상자들의 내용들은 명확한 의미로 구성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언어로 다시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성된 주제를 주제와 주제묶음으로 분류하였으며, 주제와 주제묶음이 원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지에 대해 두 자료를 비교, 분석, 반문하면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은 학습자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고 의미화 하는 글쓰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계속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인성 수업을 마무리하며 과제로 제작한 UCC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23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9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 묶음, 그리고 2개로 총 3개의 범주 정리되었고, 이 범주 내에서 구체적으로 4개의 주제 묶음은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긍정적 범주는 '성숙의 장', '자존감의 상승', '사회를 향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범주로는 '주제 선정의 어려움'과 '기술적인 미숙'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Findings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Statements
Positive	Field of Maturity	Right thought
	Higher Self-esteem	My knowledge into practice
Negative	Paying attention to their community	Redefining character education
	Challenges of UCC assignment	Being proud of myself
		Knowing my self-worth
		Caring others
		Hope for changing the world
Difficulty of theme Selection		
Unskilled in creating UCC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성숙의 장: 바른 생각, 실천하는 나. 개념의 재정립

연구 참여자들은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 활동이 성숙해지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아직 '미숙한' 대학생의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절실하다는 손승남(2014)의 주장을 볼 때 [14], 연구 참여자들이 일련의 UCC 제작 과정을 성숙의 장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UCC 과제라는 성숙의 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는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인성의 개념 자체가 인간다움, 인간의 본성이기에 인성을 주제로 UCC를 제작하다 보니 대학생들의 머릿속에 바른 생각이 지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음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번 유튜브 교양 수업을 통해 인성을 주제로 UCC를 만들면서 공익광고 제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험이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성 주제로 과제를 수행할까 고민하면서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던 거 같습니다. 인성은 아무래도 인간성이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바른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 저도 인성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UCC 과제가 없이 수업만 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바른 생각을 스스로 성찰해 볼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J 여학생)

저는 원래도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더욱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UCC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시간이었고,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인성이 키워지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C 남학생)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UCC 과제 경험은 수업에서 배운 인성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현정과 정동빈(2008)은 대학생들이 인성의 중요성 인식과는 달리 실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는데 [18], UCC가 어느 정도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숙은 행동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4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

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UCC 과제가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유튜브 교양 수업을 통해 인성을 주제로 UCC를 만들면서 공익광고 제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험이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UCC 제작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꼭 실천해 봐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과제 경험 전에는 이러한 용기에 대해 생각은 해봤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았는데,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UCC 과제 자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 여학생)

저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메시지와 남에게 대하는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훈을 담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의 행동이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가끔 실천하지 못한 쓰레기 처리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고, 남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표현은 삼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저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와 줘서 인성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D 남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UCC 제작 과정을 통해 인성의 개념을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노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인성의 개념은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인성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경험을 통해 정립한 개념이어서 연구자에게는 더 없이 의미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비록 인성의 개념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진술하는 상당 부분이 인성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라고 규정한 '인성교육 진흥법'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진술들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는 '어디까지가 인성이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고, 주제를 선정할 때도 '악플이 인성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성이란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성이란 결국 '인간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악플을 다는 행위가 인성과 무척 관련 있는 주제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인성을 언어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

하지만 실제 UCC 제작을 해 보니 인성의 개념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됨을 느꼈습니다. (F 여학생)

UCC 제작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저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고, 자살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자살이 살자로 바뀌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교수님께만 보여드리는 과제지만 세상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성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만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성숙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나요? (B 남학생)

#### 4.2 자존감의 상승: 부딪히고 대견한 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

정종진(2016)은 인성의 핵심적 요소를 자존감으로 보았으며[43],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이 성숙한 인간 즉 인성교육의 목표인 자아실현의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자 인성 계발의 중요한 측면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매우 가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한 결정에 책임을 지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존감 상승은 대학생들의 인성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UCC 과제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UCC 과제의 핵심이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UCC 제작에 더욱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사항, 즉 기술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인성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공지에 안도하고 편안하게 과제에 임하였더니 나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남이 제작한 UCC를 본 적은 많아도 스스로 UCC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에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작품의 수준을 기술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성 주제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를 보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좀 더 편안하게 과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G 여학생)

자존감 상승의 첫 번째는 완성된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느낀 부딪힘과 대견함의 감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초점을 UCC 콘텐츠에 맞추니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제작한 UCC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높았고 진솔하면서 만족스러웠다. 물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작품들도 더러 있었지만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체로 부딪히고 대견스럽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진술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태도가 자존감이 상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겠다.

인성을 주제로 한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UCC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의 주제에 맞는 컨셉 정하기, 연출 등 생각보다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 부딪히고 눈물이 날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번 연상 과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H 여학생)

처음 과제를 주셨을 때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전공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전공하기에 남들보다 질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진부한 주제가 안 되도록 차별성에 역점을 두었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표현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전문가가 볼 때는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과정 중에 한 노력들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A 남학생)

자존감 상승의 두 번째 증거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성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4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 활동은 자존감 즉, 자신이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것이다. 최근 인간을 향한 잇따른 범죄의 잔혹함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을 포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지적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쉽게 해하고 존엄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UCC 과제 활동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사처럼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I 여학생)

### 4.3 사회를 향한 관심: 타인을 위한 배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

연구 참여자 모두가 자살, 배려, 악플,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예절 등을 주제로 UCC로 제작함으로써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 그동안 수업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공익광고이기에 대학생들이 사회를 향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UCC 과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향하는 것을 볼 때,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김병선과 장만식(2021)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특성인 심리 사회적 성숙의 발현으로써 UCC 과제가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작동시킨 결과라고 판단된다[45]. 다음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 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갔지만, 영상 제작 후에 배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도 불편한 건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할 수 있다는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내가 배려함으로써 상대방은 물론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지 않고 모두를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I 여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UCC 제작을 통해 세상을 보다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가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를 시청하는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비록 과제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개인 차원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과제 자체로 이미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 A 남학생의 진술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저는 학생이지만 기업과 단체를 통해 외주를 받아 영상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광고성 영상들과 홍보용 영상은 많이 만들어 봤지만, 이번 과제처럼 공익성을 띄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하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끈기와 열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과제 활동을 통해 돈 버는 수단 이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UCC도 의미 있겠구나 싶고 종종 만들어보아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A 남학생)

### 4.4 과제의 어려움: 주제 선정의 어려움, 기술적 미숙

연구 참여자들은 영상매체에 친숙한 학습자들이지만 주로 시청자의 입장이었는데, UCC를 직접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는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데 첫째는 인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찾으려다 보니 생겨난 어려움이었고, 둘째는 교수자가 지정해 준 주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야 함에 따른 고민이었다고 다음의 진술들에서 확인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제 설정이었습니다. 남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싶었고 진부한 주제가 아니었으면 하다보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인성이 부족한가를 생각하니 여러 가지가 떠올랐으나, 그 중 한 가지만을 선정해야 하니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B 남학생)

인성은 한 단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주제는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것을 주제로 선정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교수님이 정해주시면 그 주제로 쉽게 접근할 텐데 직접 제가 선정해야 하려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근 유튜브 댓글, 뉴스 댓글 등의 실태를 고려하여 악플을 주제로 선정하니 그 다음 과정부터는 수월했습니다. (E 여학생)

UCC 과제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UCC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미숙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70%가 UCC 제작의 경험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물론 전공자들도 30%가 존재하였지만, 이들도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비전공자와 달리 전공자들은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진술로 부정적 감정인 동시에 긍정적 감정이 공존한다고 보여진다.

영상을 찍고 그 안에 자막도 넣고, 여러 가지 음악도 입히고 싶었는데 편집 기술이 없다보니 답답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과제 공지가 나오자마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유튜브 제작 방법을 찾아 배우는데 잘 안되어서 결국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찍어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UCC를 잘 만들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J 여학생)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촬영과 영상의 편집에서 표현력입니다. 과연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을 하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카메라의 구도나 편집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최대한 의미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과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전공자라 비전공자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에서 더 어려움이 생긴 거 같습니다. (A 남학생)

## 5.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성을 주제로 UCC 과제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교양 인성 수업으로 개설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대학생의 인성교육'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중에서도 개인적 속성보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9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 묶음, 그리고 2개의 범주가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 경험을 통해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의 실천 그리고 인성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재정립하는 등 UCC 과정을 성숙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실천, 체험, 참여적 경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깨우친다는 정종진(2016)의 주장과 같이 대학생들은 직접 인성 관련 UCC 과제를 제작해봄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성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43]. 이에 대학은 물론 초, 중, 고 교실에서도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 성숙의 장, 즉 UCC 과제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성을 실천, 체험, 참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UCC 과제를 통해 자신들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UCC 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뿌듯하고 대견한 자신의 발견과 가치 있는 존재로의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자존감과 인성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이하원과 박홍석(2017)의 연구[44]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존감 향상에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박홍석(2018)의 연구[46]에 기인한다. 이에 인성교육의 현장은 학습자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자존감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UCC 과제를 설계하고 조력하는 교수자들은 그 과정 중에 수시로 학습자들을 지지와 격려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UCC 과제를 통해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보다 성숙해진 인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주체가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이 성숙해진다는 조혜경(2021)의 주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라고 하겠다[47]. 따라서 UCC 과제가 단순한 과제로만 머물지 않고, 동료들과 공유는 물론 유튜브에 탑재함으로써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요즘은 악플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댓글을 작성할 때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신에 대한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UCC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일과 보다 질 좋은 UCC 제작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UCC 제작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이 선행될 때 대학생들은 좀 더 인성에 집중하면서 좀 더 질 높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UCC와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교사, 교수자를 위한 UCC 전반의 재교육이 수반된다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질적 연구 능력의 부족으로 현상학적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을 주제로 한 UCC 과제의 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영상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습자들에게 UCC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적용은 인성교육을 더욱 집중하고 관심과 동기를 일으키는 동력원이 되기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병선과 장만식(2021)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이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가 UCC 과제 수행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었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숙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습자들이 주도하여 제작하는 과제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인성 관련 과제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연구자들의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 인성교육이 전통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과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교육 현장 실무자들이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박홍석(2018)의 주장 [46]을 언급하며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인성이 유지, 발전되며 완성될 수 있도록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인성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며 시급하다.”

## REFERENCES

- [1] Y. E. Lee. (2006). A study on the developing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from dropou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9(1), 95-104.
- [2] J. H. Lee, M. S. Choi & H. Y. Park. (2009). The effec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2), 205-220.
- [3] Y. M. Park. (2012).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7), 497-509.  
DOI : 10.5392/JKCA.2012.12.07.497
- [4] E. J. Kim.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haracte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Youth Welfare*, 19(3), 81-108.  
DOI : 10.19034/KAYW.2017.19.3.04
- [5] S. S. Yang, H. J. Kim & K. P. Joo. (2006).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9(2), 145-170.
- [6] J. H. Jo. (2021). Education-plan of personality & aptitude to improve employment of university students: Focus on personality test of company.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5(2), 103-121.  
DOI : 10.18015/edumca.15.2.202105.103
- [7] B. S. Hong. (2012). Re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social demand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2), 269-291.
- [8] J. S. Hur.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newspaper articles: Focusing 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5), 50-58.  
DOI : 10.18108/jeer.2017.20.5.50
- [9] H. S. Cha. (2007). New directions i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 149-163.
- [10] J. H. Lee. (2016).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2), 219-250.
- [11] S. S. Paek. (2017). A study for direc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13-51.
- [12] H. J. Ruy, S. E. Do & J. S. Ko. (2017). The analysis on educational efficacy of humanity education i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447-474.
- [13] J. S. Kim & H. N. Kim. (2016). An integrative review on Korean studi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47-555.  
DOI : 10.5762/KAIS.2016.17.4.547
- [14] S. N. Son. (2014). A didactical reflection 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11-41.
- [15] K. M. Lim, D. B. Park & S. Y. Lee. (2016).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for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 Agricultural Extension*, 23(4), 375-385.  
DOI : 10.12653/jecd.2016.23.4.0375
- [16] M. K. Yang. (2020).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 coaching competency program for personality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oaching*, 13(2), 93-103.
- [17] G. Y. Lee & Y. T. Jo. (2016). Needs analysis for personality education orient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1(2), 1-18.
- [18] S. K. Whang. (2021).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using eastern ethics. *Studies in Confucianism*, 54, 371-398.  
DOI : 10.18216/yuhak.2021.54..014
- [19] H. J. Lee & D. B. Jung. (2008). The effect of UCC task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9(1), 283-306.
- [20] S. J. Maeng & D. B. Jung. (2008). The effect of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 using UCCs on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5th and 6th grade students. *English Linguistic Science*, 17(1), 50-67.
- [21] E. J. Jee & Y. H. Lee. (2017). Study on application of video UCC project in the fundamental nursing subjec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7), 1-18.  
DOI : 10.22251/jlcci.2017.17.17.1
- [22] J. W. Creswell. (2015). Revisiting mixed methods and advancing scientific practices. In S. Hesse-Biber & B. Johson(Eds), *The Oxford handbook of multimethod and mixed methods research inquiry*(pp 57-71). Oxford, UK; Oxford Press.
- [23] G. Y. Lee. (2021).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personality education of university published in Korean Journal articl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1579-1599.  
DOI : 10.22251/jlcci.2021.21.1.1579
- [24] J. Lagarto. (2012). User generated content: A path or a resource for learning?. In T. Amiel & B. Wilson (Eds.). *Proceedings of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al Multimedia, Hypermedia and Telecommunications 2012* (pp. 2019-2024). Chesapeake, VA: AACE. Retrieved from <http://www.editlib.org/p/41024>.
- [25] J. S. Lee & S. Y. Kim. (2009). UCC business success factors and strategic planning methodology.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8(1), 21-35.
- [26] M. S. Kim, K. M. Boo, S. B. Ko & S. B. Kim (2010). An interactive UCC creation and the effect analysi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3(3), 459-466.
- [27] M. J. Kang, C. W. Lee, D. Y. Lee & Y. H. Lee. (2020).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generation Z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smartphone camera use.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3(3), 155-175.
- [28] S. Wheeler, P. Yeomans & D. Wheeler. (2008). The good, the bad and the wiki: Evaluating student generated content for collaborative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9(6), 978-995.
- [29] S. Fee & L. Fee. (2003). Pedagogical approaches for the use of digital video.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Annual*, 2, 1407-1414.
- [30] H. Greene & C. Crespi. (2012). The value of student created videos in the college classroom: An exploratory study in marketing and accoun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5(1), 273-283.
- [31] J. H. Kim & J. Y. Jeong. (2009). The effect of educational using UCCs on the capability of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3), 125-143.
- [32] L. Y. Kim. (2016). Analytical research into application patterns of UCC media production strategies: Focused on pre-teachers' implementation of UCC production task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8, 63-92.  
DOI : 10.18628/urimal.68..201603.63
- [33] S. H. Kang. (2007). A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educational utility of UCC.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3(4), 25-48.
- [34] B. H. Kong. (2012). An aesthetical thinking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nursing sci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3), 441-451.
- [35] N. I. Lee. (2005).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henomenology & Contemporary Philosophy*, 24, 91-122.
- [36] K. H. Kim, K. D. Kim. & J. Y. Park. (2011). An explorative study on discourses of adequate validity criterion in qualitative researc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2), 155- 177.  
DOI : 10.20970/kasw.2011.63.2.007
- [37] B. H. Kim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38] G. S. Yoon. (2013). A meaning of experience the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With exemplary case of grounded theory method.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7(2), 163-200.
- [39] S. W. Lee & C. J. Lee. (2010). A media education through converting video file formats. *Korean Education*, 86, 257-278.  
DOI : 10.15734/koed.86.201012.257
- [40]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sees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41] B. R. Jeon.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YouTub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5), 289-306.  
DOI : 10.24159/joec.2019.25.5.289
- [42] W. F. Mckeach & C. L. Doyle. (1966). *Psychology*. London: Hddison-wesisey, 56.
- [43] J. J. Jeong. (2016). Instructional methods and program design aimed at promoting self-esteem for personality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5, 537-561.
- [44] H. W. Lee & H. S. Park. (2017).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awareness i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8(2), 115-139.
- [45] B. S. Kim & M. S. Jang. (2021). Effects of liberal arts education using PSAs through visual media on character for prosp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5), 247-258.  
DOI : 10.5392/JKCA.2021.21.05.247
- [46] H. S. Park. (2018). The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60, 109-132.  
DOI : 10.18338/kojme.2018..60.109
- [47] H. K. Jo. (2021). A research on the possibilities of competencies: based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2), 71-85.
- [48] M. H. Shin. (2021).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activity on college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2), 161-167.

## 김 병 선(Byung-Sun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영어학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영어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학습자중심교육, 자기주도학습, 혁신적인 교수법
- E-Mail : bstesol@cku.ac.kr

## 손 은 경(Eun-Kyoung Son)

[정회원]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아동보육학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부모교육, 보육과정, 자기주도학습, 혁신적인 교수법, 아동안전교육
- E-Mail : toloveme2000@joongbu.ac.kr

## 이 준 길(Jun-Gil Lee)

[정회원]



- 2018년 6월 : 상지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상지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 관심분야 : 학습자중심교육,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코칭, 혁신적 교수법, 스포츠 리더십
- E-Mail : bstesol@cku.ac.kr